

# 구례군수 선거 '6파전'... 민주 텃밭 수성 vs 인물론 격돌

### 3선 도전 군수 민주당 경선 탈락... 혁신당·무소속 6명 도전 구례군민 표심 '오리무중'... 높은 사전투표율 등 변수 부상

#### 2만4000명 민심은 어디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되고, 본투표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6파전 구도가 형성된 구례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구 2만4000여명으로 전남 지자체 중 가운데 가장 적은 곳이지만 기초단체장 선거에 무려 6명이 출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오리무중이다.

구례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지만, 현역 김순호 군수가 3선 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결국 본선은 민주당 공천장을 받은 장길선 후보와 조국혁신당 이창호 후보, 무소속 이현창·전경태·정현택·정택균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라 평가한다. 현역 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데다 6파전으로 치러지는 만큼 표심의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현장에서 감지된다. 텃밭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물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구례읍의 한 주민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만큼 같은 당을 지지해야 구례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아무래도 같은 당이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는 군민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겠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라며 "지방소멸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살릴 공약,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고 전했다.

구례군민의 표심이 요동치며 출마자들은 민심을 사로잡을 만한 공약을 내걸며 선거 막판 지지호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길선 후보는 최근 중앙당의 지원을 받아 합동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 텃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기본소득 월 30만원 지급과 햇빛·바람연금 조성 공약을 내세워 바다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구례군의원과 전남도의원 출신인 기호 3선 이창호 후보는 구례에서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포부를 지역민과의 접점을 넓히는 등 막판 유세 총력전을 통해 지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후보들도 구례군수를 노리고 바다 민심을 훑고 있다. 전남도의원 출신인 이현창 후보는 풍부한 의정 경험을 내세우며 폭력발전을 이용한 자주재원으로 구례형 기본소득을 도입을 약속하며 표밭 다지기에 매진하고 있다.

민선 2대, 3대 구례군수를 지낸 무소속 전경태 후보는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관광상품



장길선

이창호

이현창



전경태

정현택

정택균

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약. 지역 구석구석을 돌며 민심 사로잡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년 전 군수 선거에서 5439표를 얻으며 득표율 32.40%로 2위 기록한 바 있는 정현택 후보는 구례군정에서 32년 근무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경제 구축 등 지역 밀착형 공약과 지역 내 인지도 앞세우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차에 올라 막판 지지지를 호소 중이다.

금융그룹 임원을 지낸 무소속 정택균 후보는 지식산 운전단지를 중심으로 전국 최대의 휴양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 '경제 군수'를 기치

로 내걸고 무소속 이변을 버리고 있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지역 정치에서는 각종 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사전투표율 50.44%를 기록하며 유권자 절반이 투표에 참여한 민심이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직 군수를 지지했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높은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현직 군수의 지지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구례=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군민 삶 가까이서 지켜본 후보"

#### 이남오 함평군수 후보 배우자 연설 호응

이남오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의 배우자가 최근 유세 현장에서 답답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연설이 군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있어 화제다.



특히 차량 거리유세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오남매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 아버지의 진심과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군민들과 소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진 이남오 후보의 배우자는 이번 군수선거 유세에서 한 사람의 아내이자 오남매를 키워낸 어머니, 그리고 30년 넘게 함평군 공직자로 근무해 온 경험으로, 함평의 현실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군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남편의 지지연설에 나선 배우자는 "함평군 공직자로 30년 넘게 일하면서 군민들의 삶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왔다"며 "함평의 발전은 결국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힘 있는 집권여당 후보인 이남오 후보만이 함평 발전의 큰 길을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희 부부는 함평에서 오남매를 키우며 교육 격차, 보육 걱정, 생활 걱정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며 살아왔다"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함평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반드시 함평을 살려내야 한다"고 호소해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연설이 끝난 현장에서는 "배우자의 연설에 감동이다. 눈물이 났다", "함평을 향한 가족의 진심이 그대로 전달됐다",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삶의 이야기라 더 크게 와 닿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 민형배, 응급실 뺑뺑이·교통 불편 해소 3대 혁신 발표

#### 시민효능감위원회·효능감지수·AI 맞춤형 행정 도입 등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1일 시민들이 통합특별시장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3대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먼저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를 제시했다.

전남광주 전역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통합응급의료망으로 연결하고, 119와 병행, 응급의료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

한 통합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섬과 농어촌엔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해경, 중환자 전담구급차를 연계한 입체 응급이송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형 통합 공공교통 플랫폼 '올타(ALL-TA)' 구축을 발표했다.

버스, 철도, BRT, DRT, 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시민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과제는 '이동 점뺏(돌봄 편의점)' 사업이다.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는 농어촌과 섬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고, 복지상당과 안부 확인까지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민 후보는 이를 위해 '시민효능감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 청년, 장애인, 어르신, 돌봄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또 AI를 시민 효능감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년에게는 일



민형배

자리와 주거 정보를, 어르신에게는 복지와 건강 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맞춤형 지원을 먼저 연결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효능감지수' 도입도 약속했다.

민 후보는 "하나의 특별시가 됐지만, 시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며 "특별시의 성공은 조직 규모나 권한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편리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시민효능감이 높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목표의 미래 선택해 달라"

#### 강성희 목포시장 후보 지지 호소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후보(사진)가 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목표의 새로운 도약의 길에 위해 역사적인 선택을 해달라"며 지지 호소했다.

강성희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멈춰선 목표를 계속 쫓아갈 것인지,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목표는 산업 정책과 인구 감소, 재정 위기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민들은 더 이상 변명하는 시장도, 싸우는 시장도 원하지 않는다. 결과를 만드는 시장, 일하는 시장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산업·인구·재정 대전환을 통해 목표를 다시 뛰게 만들겠다"며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조성, 김산읍 메카 구축, AI·해양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청 신설과 청년정책 확대, 정주여건 개선,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강성희

## 임문영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AI 시대, 경제 변화로 연결"

#### 청년 소상공인 만나 애로 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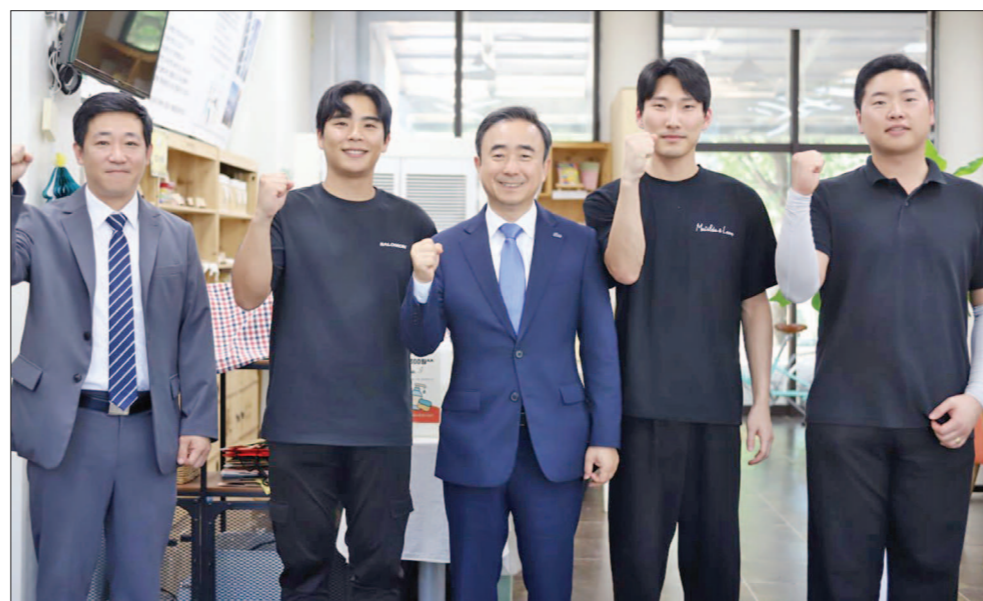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청년 소상공인들과 만나 창업과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AI 시대 지역경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임문영 후보는 최근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만나 식품 제조, 외식업, 카페, 정육점, 소상공인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는 행정 절차의 어려움부터 자금 확보, 인력 운영, 디지털 마케팅 부담까지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 창업자들은 기존 지원 제도가 단순한 매출 규모나 외형적 기준에 머물 경우 실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정보 격차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인허가, 금융, 세무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스스로 찾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가 청년 소상공인들과 만나 창업과 경영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AI 시대 지역경제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창업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최근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작은 가게들도 SNS와 온라인 홍보 역량이 생존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문영 후보는 "청년 사업가들은 지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찾고 있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 창업과

지역경제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의 변화는 점단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 골목상권, 시민 생활 곳곳과 연결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이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선거정보 카드뉴스

**개표, 투표지분류기로 조작 가능?**

**투표지분류기, 해킹도 조작도 불가능!**

# 투표지분류기 # 부정선거의혹 # 팩트체크

### 팩트체크1 "투표지분류기, 해킹 불가"

투표지분류기는 **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 통신 단절**

투표지분류기에는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어 일반 USB를 통한 해킹프로그램 설치 불가**

### 팩트체크2 "우리나라 개표, 전자개표가 아닌 종이투표 기반의 수검표"

투표지분류기는 **정당·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는 수검표 보조 장비에 불과**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전량 눈으로 확인하는 등 개표의 전 과정 수작업으로 진행**

### 팩트체크3 "모두의 눈을 피해 개표 조작, 불가능"

투표지와 투표지분류기는 공무원 등 **개표사무원이 함께 관리**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전 과정 참관 및 촬영**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